

'식사를 합시다3', 먹방은 기본 러브라인까지 기대

윤두준, 백진희 주연의 '식사를 합시다3:비긴즈'가 시청자들과 만남을 앞냈다. 두 번의 시즌을 거쳐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번 시즌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

10일 오후 첫 방송될 '식사를 합시다3:비긴즈' (이하 '식사3', 극본 임수미, 연출 최규식 기획 tvN, 제작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서른 넷, 슬럼프에 빠진 구대영(윤두준 분)이 식사남의 시작을 함께했던 이지우(백진희 분)와 재회하면서 스무살 그 시절의 음식과 추억을 공유하며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번 '식사3'은 시즌 1, 2와는 또 다른 먹거리와 먹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 조연 배우들의 활약이 일찌감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인트는 윤두준, 백진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김동영, 병헌, 서벽준 등이다.

먼저 윤두준이 맡은 구대영의 상 황이 전과는 다르다. 과거와 현재를

두 번 시즌 시청자들 사랑...기대 모으고 있어 스무살 시절 음식·추억 공유하며 상처 극복

오가는 상황이 이어질 예정. 식사남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인 과거, 그리고 현재 시점에 다시 만나게 된 이지우와의 만남이다. 이미 두 시즌을 통해 두 명의 여주인공과 러브라인을 그렸던 구대영의 새로운 멜로도 기대 포인트.

백진희가 맡은 이지우, 그녀는 과거 식사남 구대영과 함께 했던 인물. 회차가 진행될 수록 그녀에 대한 비밀도 서서히 풀려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우 역의 백진희의 신명 나고, 찹쌀 자극하는 먹방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무엇보다 시즌 1, 2의 여주인공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먹방을 선사한다는 게 제작진의 전언이다.

두 주인공 외에 조연인 김동영, 병헌, 서벽준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다. 2004년 구대영의 기계공학과 동

기이자 '단무지 9인방' 역할을 맡은 세 사람이다. 이들은 단순히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역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과 어울리지는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제작진도 기대하고 있다는 세 조연들의 활약은 시청자들에게 2004년 시절 추억을 회상케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식사3' 관계자는 "이번 시즌은 추억, 사랑 그리고 드라마의 특색인 먹방까지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소재와 스토리 조합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면서 "첫 방송부터 알찬 재미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것이다. 분방 사수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식사3'은 '식사를 합시다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로 16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된다.



매니저 향한 애정 듬뿍 '전지적 참견 시점' 이영자X신현준



'전지적 참견 시점' 이영자와 신현준이 매니저를 향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12화에서는 이영자와 신현준이 가족만큼 소중한 매니저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12화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1부 6.3%, 2부 7.7%를 기록했고,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인 2049 시청률은 1부 3.7%, 2부 4.9%로 토요일 전체 예능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보였다.

이영자는 생애 첫 매니저와의 동반 CF 촬영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하루 종일 오프오프를 먹고 운동까지 한 그녀는 간단히 저녁으로 소울푸드 서리태 콩물과 고소한 순두부를 먹었다. 다이어트에 성

공한 줄 알았던 그녀를 뽀뽀하는 맛집 골목에 가서 어머니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영자는 모든 가게를 돌리며 특별히 맛 표현을 펼쳤고, 이에 매니저는 "신기했어요. 실제로 다 한 군데씩 가보셨구나"라며 놀라워했다.

겨우 골목을 빠져 나왔나 싶더니 군고구마가 이영자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달콤한 냄새에 흥난 그녀는 매니저와 군고구마를 하나씩 먹고 기분 좋게 다이어트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옷 가게. 이영자는 매니저의 첫 광고 촬영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옷을 골랐다. 매니저는 이영자의 센스가 빛나는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어보며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골랐고, 이영자는 매니저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며 행복해했다.

이영자가 이렇게까지 들뜬 이유는 이번 광고가 이영자에게도 특별하기 때문. 사실 이영자는 "매니저랑 같이 찍는 건 생애 처음이잖아요~"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동반 CF를 찍는 사실을 자랑을 했었다. 그

녀에게도 매니저와의 광고 촬영이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이영자의 애정이 듬뿍 담긴 옷 신물을 받은 매니저는 "어색하고 그랬는데 신발님이 보시고 예쁘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했죠"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참견인들도 "진짜 애정이 보인다~"고 말해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겼다.

신현준도 10년 지기 매니저와의 우정을 과시했다. '영양제 중독'으로 웃음을 자아냈던 신현준은 좋아하는 영양제를 사러 간 마트에서 매니저의 부모님을 위한 선물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섬세함을 보였다. 의외의 모습도 드러났다. 신현준은 아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의견을 물으며 그의 구매 결정을 따랐다.

이에 대해 매니저는 "제가 형님보다 11살 어린데도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형님하고 10년 동안 일 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를 존중해준다는 생각에"라고 신현준의 굳건한 믿음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또한 신현준도 "친형제, 가족처럼 생각을 한다"면서 매니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영양제, 노래, 웃음 이외에 신현준의 새로운 중독 증상이 공개됐다.

그는 '청국장'에 중독돼 점심에도 저녁에도 청국장만 먹었고, 이로 인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매니저는 매 식사시간마다 괴로워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신현준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가글을 하는가 하면,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도 가글을 하는 등 손에서 가글을 놓지 않았다. 이 같은 신현준의 독특한 중독은 토요일 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퍼지게 만들었다.

'프로듀스48' 한일 온라인 뜨겁게 달궜다

Mnet '프로듀스48'에서 국민 프로듀서가 선택한 58명의 연습생이 밝혀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프로듀스48'은 한국 예능으로는 이례적으로 일본에서 실시간 화제를 장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 BS스카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는 '프로듀스48'은 매회 방송이 진행되면서 일본 내 화제성이 급등하는 상황. 13일 방송된 5회에는 버즈량이 급격히 증가해 방송 직후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서 타케우

치 미유, '고토 모에', '이가른'의 이름과 비주얼 센터 등 '프로듀스48' 방송 연계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올랐다.

'프로듀스48' 관련 뉴스들이 야후 재팬 연이면 메인에 장식하기도 해 일본 내 급격히 상승 중인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생존과 방송을 결정짓는 첫 번째 순위 발표식인만큼 한국에서도 '프로듀스48', '헬멧', '이승기', '최예나', '켄베', '이가른'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서 타케우

했다. 또한 '안유진', '장원영', '타케우치 미유', '고토 모에', '사토 미나미' 등 화제의 연습생과 '프로듀스48 순위' 등의 검색어가 1위부터 9위까지 줄 세우기를 하며 '프로듀스48'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13일 방송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시청 열기를 반영하듯 TVING과 엠넷닷컴을 통한 실시간 방송의 최대 동시 접속자도 대폭 증가해 4만 명으로 다시 한 번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프로듀스48'은 콘텐츠 영향력 지수(CPI) 1위, 일본 시청률 RANK 일간 1위로 韓日 양국에서 북북적인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페이스 오프로 연미스터리 멜로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이 흥미진진한 반전 미스터리 멜로의 서막을 열었다.

14일 방송된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에서는 지은한(이시이, 남상미 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지은한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김반장(김태희 분)에게 쫓기고 있었다. 김반장은 "클라이언트께서 돈을 두둑히 챙겨주시겠다고 했다"고 지은한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만 지은한은 "나 그렇게 싸구려 이야야 당신 클라이언트한테 내 발로 찾아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전해"라고 응수했다. 지은한은 김반장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한강우(김태원 분)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탈출했다.

이후 지은한은 심장마비로 쓰러진 한강우의 목숨을 구했다. 지은한과 한강우가 서로의 목숨을 구하며 운명적인 인연을 맺은 것 지은한은 자신이 구한 한강우가 성형외과 전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의 병원에 찾아가 울면서 성형수술을 부탁했다. 앞서 지은한은 보호자를 자처한 장석준(김보강 분)을 만난 지은한은 "이제 살릴 자신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마음이 약해진 지은한을 성형수술 시켜 새로운 얼굴을 선물했다.

여기에 강찬기(조현제 분)과 정수진(한은정 분) 역시 미스터리한 인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강찬기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모하는 SBC의 간판 앵커로 등장했다. 뉴스를 진행하는 만다린 모드로 등장했지만, 강찬기 역시 무언가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강찬기는 정수진에게 "내가 부탁한 일은 왜 처리 안하냐" 왜 이렇게 늦냐고 재근했고, 정수진은 지은한을 쫓던 김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두 달이나 걸리냐"며 "그 여자 빨리 죽여버리고 팔개 내 앞으로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 강찬기와 정수진이 찾고 있는 사람이 지은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은 페이스 오프라는 소재로 반전 미스터리 멜로의 막을 열었다. 속도감 있는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음력 6월 4일)

<p>▶쥐 공작자 그, 그, 흥성씨는 자기가 만든 듯에 자기가 채이는 격이니 조심하라. 무슨 일든 마음이 들뜨고 흔들리게 되면 매사 흐트러지게 되니 균형 잃지 말고 집중함이 좋을 듯. 용기를 가지고 대담하게 행동 할 것.</p>	<p>▶돼지 같이 사는 사람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니 이점표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격. 판단을 잘해서 선택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 다스리는 기법을 배울 것. 세일즈, 가이드, 보험설계사는 노력만큼 대가가 있으니 승전보가 들리는 하루가 될 수.</p>	<p>▶원숭이 어렵고 힘든 고비는 누구나 한번쯤 겪으면서 살아가는 법.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난의 길은 같다고 본다. 자책하기 이전에 용기를 잃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도전할 것. 그, 그, 흥성씨 사랑하는 사람과는 진실하고 깊은 사랑 싹터 나갈 수.</p>
<p>▶사슴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듯. 4, 6, 11월생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우니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중자해야 할 것. 하루 아침에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 그, 그, 흥성씨 금수업 종사자는 서서히 호운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라.</p>	<p>▶뱀 경쟁이 치열한 때이니 자기 기반을 위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 그, 흥성씨 음식, 식품, 중개업자는 하고 있는 일 소득이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났던 새로운 구상에 어려움만 가중되는 격. 1, 9, 12월생 물질을 치우치다가 관재가 따를 수.</p>	<p>▶물고기 3, 4, 12월생 스스로도 자신을 알 수 없는데 사귀는 자를 믿는다는 것은 모험. 사는 사람과 갈등 겪으면서 스쳐지나간 사람에게 정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듯. 그, 그, 흥성씨 친한 사람과 이권다툼으로 시비가 우려되니 언행 조심하고 대항은 피하라.</p>
<p>▶호랑이 서로 상서주지 않도록 말 한마디에도 주의하라. 자존심 세워가며 다투면 상대 또한 굴하지 않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면 신중함이 좋을 듯. 5, 7, 9월생 현재하고 있는 일에 투자는 길함을 알 것.</p>	<p>▶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뿐이구나. 1, 4, 7월생 사업에 빛이 있으니 미래에 웃음소리 들릴 듯. 5월생 자녀를 둔 부모는 관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반항할 수 있으니 지켜보아야 할 것.</p>	<p>▶물개 한 가지의 오레 하지 못하고 실증을 내니 끝맺음이 항상 좋지 못한 격. 떠나는 자 잡으려 말고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봄이 좋을 듯. 2, 4, 8월생 운수, 연구직 종사자는 다른 직업으로 바꾸려 하나 때가 아니라 당분간은 생각지도 말 것.</p>
<p>▶토끼 무엇인가 될 것 같으면서 막히게 되니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외에 빠질 수. 이상이 높은 탓과 자신이 최고가 아니면 성에 차지 않는 독선적인 성격을 고쳐나갈 때 길함을 알 것.</p>	<p>▶양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현명한가를 생각해 보라. 자기 주관을 뚜렷이 내세울 것. 1, 5, 9월생 상대를 진심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내 맘 같지 않으니 실망의 연속이 될 수. 사랑에 애매하다가 건강이 위함수위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할 때.</p>	<p>▶돼지 마음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으니 상대 또한 마음을 정하기 힘든 상대구나. 진실한 대화가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저로 꾸미지 말 것. 3, 7, 10월생 변동은 성사가 가능하니 때를 기다리며 순리대로 행함이 좋을 듯.</p>